



▲ 한·미 FTA 2차 협상에 맞서 한·미 FTA를 저지하는 제2차 농축수산물결의대회 및 총궐기대회가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한·미 FTA 반대를 외치는 양돈협회 회원들의 모습.

시청앞 광장서 제2차 한·미 FTA반대 시위 열려

우중 사회 각계각층 7만여명 반대시위 운집

한·미 FTA 2차 협상에 맞서 한·미 FTA를 저지하는 제2차 농축수산물결의대회 및 총궐기대회가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7만명의 농민, 시민 등 모여 FTA 반대목소리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축산인, 농축산단체, 영화계, 학계, 노동계 등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과 FTA 제2차 협상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농축수산물 비상대책위원회

는 지난 12일 43개 소속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제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FTA는 있을 수 없다”며 “한·미 FTA 체결시 농축산업은 미국에 종속되어 제2의 멕시코가 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농업을 위시한 전 산업부문을 한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FTA를 반드시 막고, 특

제2차 한·미 FTA 반대 시위



▲ 이날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집회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최영열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 대표자들이 한·미 FTA 저지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제2차 한·미 FTA 반대 총결기대회에는 양돈농가 등 약 7만여 명의 농민이 참여했다.

히 FTA 체결로 인한 축산업 부문의 직격타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 부문의 직격타 막아내야

한편 이날 한·미 FTA저지 농축수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한·미 FTA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를 해임할 것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FTA를 중단시키고, 정부의 대외 협상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3차 협상도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한편, 이번 2차협상은 파행 속에 종료되었으며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에서 9월에 열리는 3차 협상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계획이다.

흔히들, 한·미 FTA와 나프타(NAFTA)로 인한 멕시코를 많이 비교한다. 나프타(NAFTA)를 통해 밝은 미래를 꿈꿔왔던 멕시코는 지금 고용불안과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사회가 매우 불안하다.

과연 멕시코 정부가 말하던 밝은 미래가 멕시코 농민들에게 현재 보장되고 있는지 우리 협상단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 49명이 가입한 국회 내 최대 FTA 관련 단체인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6월 29일 ‘한·미 FTA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재경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관료들과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FTA 반대진영 전문가, 삼성, LG경제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총론 분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미 FTA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인데다가 정부의 협상능력이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의심스럽다”며 “오직 어떻게 해서든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만 강력하다”고 질타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FTA상대국 리스트에도 없었는데 우리 통상교섭본부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를 갖

다 바치면서 가장 강력한 FTA 협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분명

정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멕시코가 미국과 FTA 맺어서 수출과 투자가 늘었다고 선전하더니 멕시코의 실상이 알려지니 정부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서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얼마 전에 FTA에 대해 외교 안보 분야의 고려는 없다고 변명했지만 한·미 FTA 체결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 쪽에 섰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사회정치외교 분야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준비가 전혀 없는 협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 능력없는 기업, 산업은

도태되고 그 종사자들은 거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대학장은 “농업은 WTO의 DDA 협상으로 해서 완전 개방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여기다가 한·미 FTA는 결정타”라며 “호당 경지면적이 미국은 178.2ha, 한국은 1.5ha고 미국 농무부의 농업보조금이 한 해 150억 달러가 넘는데 무슨 FTA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학장은 “협상 중 우리 정부의 주장들이 상당 부분 관철된다 하더라도 미국 농업의 절대적 비교 우위와 우리 농산물의 대미수출에 한계가 있는 한, 한국 농업·농촌 부문의 해체적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농민들이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급격하게 농업을 포기하게 되어, 농업·농촌의 피폐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우려를 다 이해한다”면서도 “개방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조건부 열람 가능

한편 배종하 국장은 “3년 간은 협상 관련 문서를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이해관계자들이 농림부를 찾아오면 비공개를 조건으로 통합협정문을 열람시켜줄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위생검역(SPS)협정에 대해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시 위생검역의 대부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나라가 무조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관련부처는 왜 있어야 하느냐”며 “SPS 협정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불합리한 협상인지 알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 내에서 최대규모 FTA 관련 모임이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양동**

한·미 FTA 체결, 제2멕시코 될까 우려

멕시코는 지난 1992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으나, ‘NAFTA=실패’라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11일 서강대에서 ‘NAFTA 12년 멕시코의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멕시코 국립자율대학교 칼로스 우스강가 교수는 “NAFTA로 인해 농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값싼 미국의 농산물과는 경쟁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멕시코 사례로부터 한국인들은 무엇을 배울지 고

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MBC는 PD수첩을 통해 NAFTA 이후 멕시코는 수출증가, 외자유치 등으로 얻은 것보다 농업붕괴, 고용불안, 빈부격차 심화로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를 저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미국에 종속되어 NAFTA(나프타) 이후의 멕시코처럼 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며 한·미 FTA 체결을 강력 반대했다.